

연중 제 2 주일

기도서 330면 (B해)
제1독서: 1 사무 3, 3b-10.19
제2독서: 1 고린 6, 13c-15a.
17-20
복 음: 요 한 1, 35-42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 판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교구청
☎ 0041·0042·0043

□ 강론



와서 보라

이 성 우 신부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
“랍비, 묵고 계시는 때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와서 보라.”
잘못한 대화를 골자로 한 오늘의 복음은 연중시기를 맞는 우리에게 크리스찬 생활의 귀감을 제시하고 있다. ‘바라다’는 말은 인간의 보편적인 관심도를 나타내는 말 이면서, 인간의 삶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 이기도 하다. 실상 인간은 희망없는 살아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은 왕왕 허무맹랑한 바램을 갖고 살기도 한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어린양이신 예수께서는 인간의 진정한 관심사에 촛점을 맞추신다. ‘너희가 참으 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 즉 우리가 정녕 희망하는 바가 무엇이나는 말씀이시다.

제자들은 겸손된 어조로 대답한다.
“스승이시여, 묵으시는 곳이 궁금합니다.”
그들은 웬지 모르게 끌리는 바가 있어 예수님의 현주소를 알고자 한다. 넓은 안목에서 볼 때 현주소는 어떤 사람의 생활방식을 대변한다. 다시말하면 제자들은 도대체 스승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배우고 싶은 것이다.

“와서 보라!”
머리 돌 곳 조차 없는, 그래서 무엇에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인 인자에게는 긴 말이 필요치 않다. 그러나 이 한 마디는 얼마나 준엄하며, 그 의미는 또 얼마나 함축적인가? 복음사가 마태오가 전해주는 ‘세례자 요한에 대한 예수의 증언’에 보면, 그분은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Mt. 11, 7-8)라고 군중에게 힐문하신다. 눈은 종종 주인을 기만한다. 우리의 시각은 자주 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아서는 안되는 것을 보게 되는 수가 많은 것이다.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물론 삶의 진면목을 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굴에 달린 눈보다는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마음으로 볼 줄 아는 이는 마음으로 들을 줄도 안다. 보고 듣는 것이 지식을 형성하고 경험을 이룬다면 참된 지식, 귀한 체험은 마음으로 듣고 보며 해서 얻어진다.

만일 우리가 참된 지식을 원한다면 우리는 소년 사무엘처럼 야훼의 말씀에 마음으로 귀기울여야 할 것이고, 제자들처럼 주님의 거처를 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님의 현주소는 우리네 삶의 빈 자리에 있다. 외딴고 구석진 곳, 외롭고 허전한 곳, 그래서 고통이 있는 곳, 그렇지만 마음의 눈과 귀가 열리는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 어차피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께서 부르신다. ‘와서 보라!’ 송가를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자!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을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노송동본당 보좌신부)



누가 이 어린 가슴을 —소위 오송회 사건

지난 1월 14일 군산 오룡동 성당에서는 소위 「오송회 사건」으로 인한 수감자들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이 사건이 “경찰관들의 헛된 공명심과 심한 고문으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사건 관련자들의 조속한 석방은 물론 그들의 복권 및 복직”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구 정평(正平)은 이 사건이 ①불법구속은 물론 재판 전의 파면 내지는 직위해제 등으로 민주주의 법질서를 침해하였고, ②수사과정에서의 비인도적이고 비인간적인 고문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으며, ③광주사태 등의 비극적 사태들에 대한 견해 피력을 이적행위로 몰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되는 정치적인 탄압행위이고, ④관련자들인 교사들을 제자들까지 동원시켜 고발케 하는 비극이었으며, ⑤이를 중 일부는 천주교 신자로서 결코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감자의 가족들은 “사건 관련자들이 좌경의식을 가진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하느님을 신봉하는 크리스찬 이요 시민이며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백성”이라며, 그들의 어린 자식들이 지난 3년여를 간첩의 새끼가 되어 어린 가슴을 찢기우고 살아온 “가정 파멸의 늪에서 울부짖고 신음하는 참담한 실정”을 목메이게 호소했다.

이날 강론사제가 소개한 이 한 마디는 참으로 그냥 듣기가 어려웠다. —“관련자의 한 아들(국민학생)이 친구들과 축구놀이를 하다가 ‘빨갱이 새끼’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누가 아무런 죄도 없는 이 어린 가슴에 감당하기 힘든 몫을 박았는가! 십자가치고는 너무나 무겁다. 세계 청소년의 해인 이때에 듣는 이 한 마디는 그냥 듣기만도 벅했다. 주여, 이들에게 정의의 빛을 보여 주시고, 그날까지 기다릴 용기를 주소서.

숲 정 이 산책

정읍연지동성당축성
1985. 1. 23.

☆ 소해의 기쁜 소식 제 2 호

사도 성 바오로

진리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함을 주는 사도 성 바오로의 개종 축일이 1월 25일이다. 성인의 사상과 업적을 고찰해 본다.

바오로 사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즉 우리들)에게 설교했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도다. 이는 내가 너희를 보는 것과 같이 그분을 보았기 때문이다”고 한 예수님의 부활, 즉 예수님께서 그 신비체인 교회 안에 항상 계시고 교회가 나누어 주는 은혜로 신자들의 영혼 안에 늘 계시다는 것이 영원한 진리임을 증거하고 주장하기를 한시도 그치지 않고 모든 간난을 무릅쓰고 피흘렸던 것이다. 또한 사도로서 바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남의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생계유지를 위해 벌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일찌기 수공직을 배워 천막제조공 일을 한 것은 그의 저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한 장소에서 설교하고 나면 복음 그 자체가 주의 세계를 건설했다고 보았다. 바오로 서간 안의 권고는 험찼고,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서술할 때도, 신학적 측면으로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것을 주님의 입장에서 즉 신앙과 사랑의 눈길로 보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교 세계가 알지 못하였던 겸손과 애덕이라는 두 가지 덕을 모든 피조물에게 부여하였다. 뛰어난 시인 바오로가 노래한 “사랑의 찬가(고린토전서 13장)”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만 번을 들려준다 하더라도 싫증이 나지 않고 천국의 문 저편에서 들려오는 것과 같이 신성하고 청신함을 느끼게 한다.

사도 성 바오로, 그는 유랑자와 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찬양의 것을 원하였으며 이것을 지상에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그의 열은 오늘날도 순교의 영광 속에 찬란히 빛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주일은 구라주일♣

1월 27일(연중 제 3주일)은 제18회 구라주일입니다. 나병에 대한 바른 인식과 아울러 소외되고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한 따뜻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구라주일에 바쳐지는 특별헌금(2차 헌금)은 교구로 보내어져 구라사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한 일 옷 감

- 후수(회갑.수)의옷감
- 명주.목화솜이불 전문

교우분들께는 염가봉사

전주 구남부배차장(영신당한약방 옆)
조성순(테레사)
TEL. 2-7203



작은 바람

홍로벨다

85년 새 달력이 내 방을 장식하며 나의 새해는 그렇게 시작됐다. 지난 해의 달력을 떼어대면서 '우리 안의 거것들도 떼어버릴 수 없나' 생각해본다.

많은 슬픈 사건들을 보면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참 의미를 찾지 않고 우리와 무관한 일들로만 들리는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보속하고 있다는 두려워하는 양심은 어둠 속에 묻어버리고, 하느님은 상상의 신이 아닐까 하는 논리에 그들은 더 매력을 느낀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지성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는 그들의 오만은 공기중에 흩날리는 꽃잎들을 검은 물방울로 퇴폐시켜 악의 그림자가 되어 우리들의 안식처를 위협하는 현실을 바로 대하지 못하고 있다.

안일한 사람들의 생활철학은 서로의 고통을 체휼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관심과 이기주의다. 선두에는 철대로 나서면 안되고 맨뒤는 바로처럼 보이니까 중간 위치에서 미꾸라지처럼 살아가는 자세가 현명한 처세라고 한다. 사과 상자 속의 썩은 사과 한 개가 상자에 담겨있는 사과 전체를 썩어버리게 하는 단순한 이치를 깨달아 사랑의 매를 들 수 있는 용기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한다.

풍족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가진 것만큼 넉넉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을 본다. 악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야말로 참된 사랑인데도 험하고 권세종은 사람들에게만 호의를 표시하는 타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남들이 알아주는 선행을 해야만 공로가 되는줄 아나보다. 정말 가진 자가 없어서 마음뿐인 분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물질로써만 도와주어야 나눔의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기에 따뜻한 우리의 태도만으로도 그들의 공허한 마음은 사랑으로 채워질 것이다.

소외당하고 슬퍼하는 형제들이 우리들의 관심 속에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겸손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한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쓰여진 성서안의 말씀은 누가 실천해야 되는가? 하느님께선 온 우주를 관할하는 분이시기에 교회 안의 신앙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진리는 아닐 것이다. 우리들의 언행이 일치할 때 종교를 부정하는 이들도 궁극적으로 보다 큰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삶의 선택은 자유라고 하지만 양심에 벗어나지 않는 진리와 사랑의 길을 향해 나이트 철부지가 아닌 철든 어른이 1985년 이 해에는 나부터 돼야겠다.

(군산 팔마분당)

일신 기업 석재

- *건축석재 가공 및 시공
- *상석·석판

(대리석, 기타석재)
대표 김종의(야고버)
(함열천주교회 사도회장)
전화 공장 (0653)②5000
자택 (0653)②0049

특수자연시 컴퓨터로 마음에 원하시는 안경으로

눈을 밝고 보호해 드립니다
눈을 편하게

보안당 썬타

전주구역전오거리 ☎ 3-3032
주. 윤베드로



□ 그리스도교 일치 기도주간을 보내며

오늘에 이르러,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풍랑의 시대를 겪은 뒤에 하나이신 주님, 하나인 믿음, 하나인 세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인 하느님을 선포하는 성서의 한글 공동번역본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음은 실로 흐뭇한 일입니다. 그밖에도 서로 다른 교회의 사람들이, 다른 좋은 일 가운데, 중요한 신학 서적도 함께 있다는 사실도 그리스도인 간의 늘어나는 협동을 말하는 고무적인 표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서로의 소신과 양심을 존중하면서, 믿음과 사랑에 있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과 하나이듯이, 그의 뜻대로 참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이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의 신빙성은 그 제자들의 일치에 달려있음을 우리 모두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의 부활의 힘으로써 주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로 합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또 영원토록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Ⅱ베드 3, 18).

(한국 개신교 지도자와의 만남에서 (1984. 5. 6), 교황님 말씀)

□ 가톨릭 교리신학원

시청각 통신성서 교육부 신입생 모집

—우편통신의 성서교육—

*신·구약성서 입문과정

- 1) 내용—성서 전반에 걸친 2년간의 입문과정. 2) 자격—고졸 정도의 학력소지자(교과 초월).
- 3) 구비서류—입학원서·증명사진 3매·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 전형방법—서류전형. 5) 원서교부 및 접수—매년 1월~2월 7일까지. 6) 원서 우송을 원하는 분은 3,400원을 소액환으로 보내십시오.

*바울로의 영성사상 과정

- 1) 내용—바울로 서간을 중심으로 기도생활에 도움받을 수 있는 1년과정.
- 2) 신청방법—신청서와 함께 소액환 또는 통상환으로 등록금을 납부함.
※ 입학원서 및 신청서 구입처—전주 성바오로 서원 ☎3398
※ 문의처—[132] 서울 도봉구 미아동 103 성바오로 여자수도회
시청각 통신성서 교육부 전화 (988) 3812

책 소개

어둠을 헤친 사람들—24위 성인 순교자전

이 병영 지음 값 2,600원

이 책은 가장 혹독한 박해로 알려진 성인 대박해 때의 순교자들의 생활과 박해자들의 횡포를 “치명일기”와 “관청기록” 등을 중심으로 엮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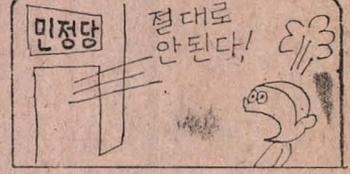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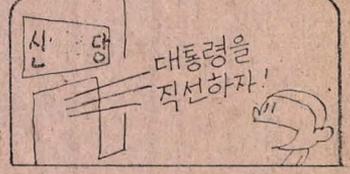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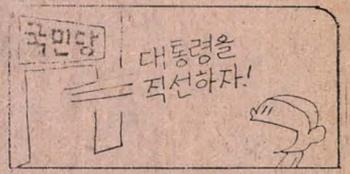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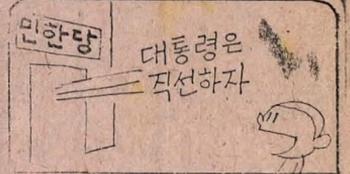
24위 인물들을 한 사람씩 소개하여 천주교도가 되기 전의 생활과 신자가 되게 된 동기, 신자로서 겪는 고충과 활약, 박해자들의 횡포, 박해 방법 등이 조금도 가공되지 않은 채로 드러나고 있다. 순교자들의 행동 안에서 참 진리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하느님의 사랑—G. 알베리오네 신부의 생애

L. 롤로 지음 박 청 옮김 값 1,200원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신비를 살아간 알베리오네 신부의 생애를 담은 전기이다. “복음을 대중의 마음 속에 침투시키기 위해서” 정보와 사상전달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사회 홍보수단을 이용한 그의 비범한 삶이 차분하고 간결하게 묘사되어 있다.

요심이 (598) 김병오



직원 모집

1. 자동차 운전기사(남)
2. 자격 : ①만 25세~35세 미만
②운전면허 취득한 자로서 행정사무능력이 있는 자
3. 구비서류 : ①자필이력서 1통
②운전면허증 사본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4. 접수기간 : 85. 1. 21~1. 24. 17시까지
5. 접수처 : 당조합 사무실(구 성모병원) ☎ 2-0498
6. 기타 상세한 것은 당조합에 문의 바람
※ 본당신부의 추천서 첨부 바람
전북의료협동조합 이사장 김 영 일

마기환 안과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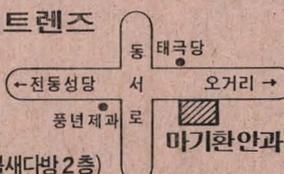
부설 : 새한콘택트렌즈

원장 안과전문 마기환

한남회(비리시타)

TEL. 75-2203

(시집가는날 태극당건너편 불새대방 2층)



85학년도 원아모집

*유아반(만 3~4세) : 20명

*유치반(만 5~6세) : 40명

*교육기간 : 1년 교육과정

※ 통학버스 운행 ※ 현재 원서 접수중 미술교사 초빙-1명

관인 해돌이 미술교육학원

효자동 우진아파트 입구 ☎ (75) 4374
원장 김순주(베로니카)

(4) 순 정 이



1. 1월 교미시음 회의 : 20일 오후 2시, 장소-전동성당, 대상-각 꾸리아 및 직속 Pr. 간부
2. 성직자 어머니회 : 21일 오전 10시, 장소-가톨릭 센터 ※ 주교년 모시고 회합 있음
3.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21일 오후 7시, 장소-센타 성당 ※ 정기총회는 2월 4일로 연기
4. 교구 출신회원 : 22일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5. 공동체 목상회(M·B·W) : 23일~26일, 장소-가톨릭 센터, 회비-2만5천원
6. 고·대·일반(남자) 청소년 피정 : 24일 오후 4시~25일, 장소-가톨릭 센터, 참가비-4천원
7. 1월 은혜의 밤 및 철야기도회 : 26일 오후 9시~27일 오전 6시, 장소-효자동성당, 대상-모든 교우
8. 중·고등학교 연합회 성서세미나 및 정기총회 : 30일 오후 1시~31일, 장소-가톨릭 센터 대상-교구내 중·고생, 참가비-4,500원, 준비물-성서·미사도구·세면도구·필기도구

제 1 지구 각 분당 소식 ①

(중앙)

주임 신부 문 정 현
전화 ⑥1711~3 보좌 신부 나 춘 성
사도 회장 김 인 철

1. 새성전 비품 봉헌하여 축복받으시다
장동 4개×423,000, 소파 2개×325,000, 탁자 2개×40,000, 책장 3개×159,000, 책상 3개×96,000, 의자 16개×20,000, 식탁 2개×89,000, 단스 2개×138,000, 고해소 의자 1×20,000
 2. 성모회 : 금일 공식미사 후
 3. 울뜨레아 : 금일 공식미사 후
 4. 유아세례 : 25일
 5. 제단체 85년 행사계획 및 84년 보고서 제출요
- 지난주 봉헌금 : 964,410원 교무금 : 266,500원
감사헌금 : 박기선·오수정·1만원

(노송동)

주임 신부 김 용 태
신부 ⑥0969 번 보좌 신부 이 성 우
수·사 ⑦0732 사도 회장 이 흥 재

1. 초·중·고등부 피정안내 : 교사단 피정-21일, 중등부 피정-22일, 고등부 피정-29일, 초등부 피정-30일~2월 1일까지, 고등부 도보성지순례-24일~26일까지, 참가대상-본당 모든 신자학생 중, 국교3년~고등학교생까지, 준비물-미사도구, 복주, 필기도구 참가비-중고생은 쌀 1봉지와 현금 1천원, 국교생은 도시락과 현금 5백원
2. 열제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여성 제18차 꾸르실료 : 26일~29일까지 본당 참가자-한한운씨·한영순씨·최해숙씨 많은 기도과 빨방카를 보냅니다
4. 교무금 납부의 날 :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신년도 교무금 신입합시다
5. 금주의 전례담당 : 제2조, 차주는 제3조가 담당함 차질없이 진행합니다

(덕진)

신부(3) 2182 주임 신부 김 봉 희
전화 수녀(72) 1222 보좌 신부 김 의 안
사주(72) 6259 사도 회장 양 상 열

1. 오늘의 모임·행사
①사도회 임시총회-공식미사 후(성당) 전일원, 분과위원, 단체대표, 구역장, 공소대표 모두 참석 바람
②성모회-10시, 반석회-12시
③중·고생 모악산 등반-학생미사 후
 2. 선교분과위원회 : 23일 저녁 7시30분
재경분과위원회 : 25일 저녁 7시30분
봉사분과위원회 : 25일 저녁 7시30분
 3. 금주 분당청소 : 까리따스회-26일 오후 3시
 4. 차주전례 복사 : 요셉회
 5. 본당 운영에 다같이 협력합시다
교무금 납부(84년 미납금), 신입(85년분) 바람
 6. 영세·권전사진 : 덕진사진관에서 찾아가시기 바람
- 지난주 봉헌금 : 578,901원 교무금 : 242,500원

(복자)

자제관 75-0592 주임 신부 권 영 균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 성 원

1. 사도회 : 다음주일(27일) 저녁미사 후
2. 사제서품 : 28일 중앙성당 10시30분(한부제님) 컷미사-30일 오전 11시 복자성당, 많은 참석 바람
3. 주일학교 6학년생 피정 : 교구청에서, 22일~23일
4. 84년분 교무금 미납 : 속히 완납 바랍니다
5. 학생회 임원개편 : 회장-염상기, 부회장-박기석·이영수
6. 빈첸시오회 월례회 : 21일 오전 10시
7. 성가연습(컷미사 대비) : 25일 오전 11시

8. 예비자교리 : 매주일 공식미사 후 유해실에서
 9. 금주청소 : 월-사랑하오신 어머니, 토-순결하신 어머니
차주청소 : 월-다위의 탑, 토-셋벨
 10. 금주전례 : 해설-김인식, 독서-①강기연 ②김재식
차주전례 : 해설-유덕열, 독서-①정동민 ②정운주
- 지난주 봉헌금 : 165,550원 교무금 : 491,200원

(서학동)

신부 ⑥8307번 주임 신부 김 동 준
수녀 ⑥2276번 사도 회장 김 낙 균

1. 모임 : 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울뜨레아-24일 저녁미사 후
 2. M.B.W교류 : 23일~26일 가톨릭 센터에서 회비-2만5천원(1만원 본당에서 지원)
 3. 유아세례 및 병자방문 : 매일 세째주 목요일 미사후
 4. 차주전례 : 해설-김광수·오정희
독서-①박형식 ②김나섬, 기도-천사의 모후
- 지난주 봉헌금 : 347,165원 교무금 : 116,000원

(순정이)

전 화 ⑦7366 주임 신부 김 종 길
수·유 ⑥9567 사도 회장 김 수 곽

1. 성모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온풍기 성금 : 1주과-3만6천원(년) 김벨라미다-20만원, 한골롬바-2천원, 익명-7천원 이노엘라-5천원, 장부영-2천원, 황현도-1만원, 허한용-5천원
 3. 축! 결혼 : 27일 11시30분
신랑-백기철(요한), 신부-김광희(체첼리아)
 4. 금주전례 : 해설-이귀례, 독서-기도-김남곤·이은자
차주전례 : 해설-이귀례, 독서-기도-김경주·이정숙
- 지난주 봉헌금 : 271,730원 교무금 : 352,550원

(전동)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 치 양
전화 사주 ⑥3222 보좌 신부 김 정 병
수녀 ⑥8347 사도 회장 김 병 오

1. 성화회 : 공식미사 후
 2. 교미시음 : 오늘 오후 2시
 3. 글라라 형제회 : 다음주 오후 1시30분
 4. 성마리아 꾸리아 : 다음주 오후 2시
 5. 청년 등반대회 : 21일 오전 9시, 성당 집결 장소-모악산, 회비-1천원
 6. 감사 : 전가밀라-제대초 60개 기증
 7.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이주철, 독서-①최병래 ②최정식
공식미사 : 해설-이주철, 독서-①안득수 ②고수창
저녁미사 : 해설-김윤주, 독서-①최종만 ②이 훈
- 지난주 봉헌금 : 783,650원 교무금 : 206,500원

(호자동)

신부 75-3841 주임 신부 박 중 신
수녀 2-4804 사도 회장 이 교 성
사주 2-0915

1. 주부 섬서대학 : 등록금·회비-없음
입학식-2월 6일 오전 10시
 2. 전입자 환영식 : 27일
 3. 은혜의 밤(철야기도회) : 26일 밤 9시부터
 4. 오늘의 회의 : 성모회·자모회-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380,290원 교무금 : 412,500원